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8년 10월 31일 기사입니다.

“우수한 기술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도내 중소기업인 4명
국무총리·장관상 수상

박승용 흥천 세준에프엔비 대표를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인 4명이 30일 국무총리,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는 이날 대전호텔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박승용 대표가 총리상을, 이동희 강릉 로스팅컴퍼니로움 대표, 윤용준 강릉 페이스 대표, 김봉곤 원주 네오팜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용 세준에프엔비 대표는 쌀을 재료로 한 간편식품을 개발해 쌀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인 세준에프엔비는 연간 2,000톤의 쌀을 가공할 정도로 생산량이 확대되며 고용 규모도 2배 늘었다. 이동희 강릉 로스팅컴퍼니로움 대표는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커피음료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용준 페이스 대표는 간판, 구조물의 시각적 효과와 내구성을 높이는 특허를 취득하고 기술교류에 참여했다. 김봉곤 네오팜 대표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개발, 보급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일손 절감, 수확량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